

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농촌성 차이에 관한 연구

- 울산시 두 농촌 마을의 사례 -

고경호 ·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The Difference in the Rurality of Rural Villages near a Metropolitan City

- The Case of Two Villages near by Ulsan -

Kyung-Ho Ko · Tae-Yeo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Resource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Cheonan, Chung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rurality of rural villages near a metropolitan city. It investigated the general status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two villages near Ulsan Metropolitan City to find out what the differences are and to diagnose the reasons for such differences and their impact on future changes in the villages. Through this survey analysis, it found that the two villages have been continuously experiencing a decrease in population over the last 10 years, despite being near large cities. In addition, it also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ies taking center stage in economic activitie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cases are rural villages near a big city, it was shown that the village near a provincial city is basically based on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Regarding future prospects, on the one hand, in the case of Dagaе-ri, the villagers expect that the current livestock industry-oriented activities may continue to develop.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hinhwa-ri, the residents think that the rural characteristics may be rapidly lost and urbaniz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rural policies for villages near large cities also need to be appli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taking into account the basis on which economic activities in the villages are developed.

Key words: rural-urban fringe, rurality, urbanity, community development, economic activities, capacity building

1. 서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팽창과 함께 농촌지역을 크게 변화시켰다. 농촌지역의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전체 국가와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의 변화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체로 농촌지역에서 농업의 비중 감소, 전통문화와 관례를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동질감과 친족의식

회박,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동활동의 감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동안 대체로 학계에서는 농촌성(Rurality)이라 고 간주해 왔던 요소들이 소멸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Bradley and Lowe, 1984). 즉, 그 동안 낙후성 및 전근대성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던 이러한 농촌성을 극복하고 소위 경제발전 과정에 농촌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나타나는 도시성(Urbanity)이 그 대안적인 모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근대 자본주의

주요어: 근교농촌, 농촌성, 도시성, 공동체 개발, 경제활동, 역량강화

* 교신저자(김태연) 전화: 041-550-3614; email: tykim@dankook.ac.kr

경제발전론에서는 이러한 농촌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농촌지역의 발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Brohman, 1999)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대부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농촌지역의 농촌성을 극복하려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성이 약화되고 도시성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구들이 소위 농촌마을에서 도시요소와 농촌요소의 혼재화 및 농민과 비농민의 혼주화(박윤호 외, 2001; 조영재 외, 2010) 현상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연구들(윤원근, 1999; 이상문 2001; 김일철, 1989)은 농촌사회가 기존에는 폐쇄된 공동체에서 일정한 신분적 위계질서를 중심으로 사회관계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마을 주민에 대한 일정한 암묵적 강제가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마을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공동체적 강제와 협력은 희박해지고, 개별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능적인 협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농촌성이 감소되고 도시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성의 약화와 도시성의 강화로 대표되던 농촌마을의 변화는 최근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귀농, 귀촌 가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농촌마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롭게 마을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성주인 외, 2015; 2016; 박시현 외, 2017). 특히 최근 농촌소멸론이 대두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농촌성의 유지를 통해서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농촌발전의 지향점에 대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체적인 국가와 사회의 변화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촌마을의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도시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서는 오히려 농촌마을의 농촌성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농업을 축소시키고, 농업인구와 농촌인구를 감소시키면서 농촌의 도시성을 강화하던 기존

정책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농업활동을 장려하고 농업인구의 증가를 통해 농촌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말하자면, 농촌성 강화정책이 병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촌마을 관련 정책 혼란의 중심에는 사실상 농촌과 도시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 근교 농촌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남겨져 있다. 과거 도시 및 지역계획을 통해서 근교 농촌의 도시로의 편입을 강하게 추진했던 지역발전 정책과는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의 도시 팽창에 따라 근교 농촌지역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 팽창의 완충지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의 정책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제 정부의 정책이 자본주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근교 농촌마을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즉,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지역의 변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또는 제도적인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근교 농촌지역을 도시의 일부로 편입하여 사고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던 학문적 역사(왕인근, 1967; 홍성철, 1967)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근교 농촌마을에서 농촌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농촌마을의 변화를 순조롭게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농촌마을의 변화 흐름을 인정하고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농촌성에 대한 개념(박덕병 외, 2006; 박석희 외, 2002; 김정태 외, 2009; 진양명숙 & 김주영, 2014; Bradley and Lowe, 1984; Woods, 2011; Shucksmith, 2018; Li et al., 2019)을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 근교 농촌마을에서 도시성과 농촌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근교 농촌에서의 도시성과 농촌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농촌마을에서의 활동 여건 및 최근 추세 그리고 주민 의견을 근거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농촌마을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적응하는 주체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이고 실제 도시화 추세에 대한 이들 주민들의 대응 방향에 따라 해당 마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정책의 방향과 외부 여건만이 근교 농촌에서의 마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실제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서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제도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도시 근교 농촌마을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근교 농촌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도시의 연장선상에서 근교 농촌의 도시로의 편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연구(박진환, 1967; 왕인근, 1967; 홍성철, 1967)와 도시로의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한 근교농업 발전(주봉규, 1974; 김형국, 1974; 이종성, 1989)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연구는 주로 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경관변화나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손용훈 외, 2014; 김유일·이애란, 1997)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삶의 질에 관한 연구(김봉원·김유일, 1997)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초기에는 도시화의 영향을 받는 근교 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방법에 중점을 두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화의 영향에 따라 변화된 근교 농촌지역의 현상적인 모습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교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것에 지역이나 마을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즉, 과거 농촌지역이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이 정책적 또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도시화의 한계들이 노정되면서 계획적 차원에서의 변모보다는 도시와의 근접성, 지역 내 산업활동의 영향이나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농촌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고 도시로 변모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근교 농촌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주민들의 활동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농촌성의 표상과 실체

농촌성(Rurality)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서구 농촌 연구 학회의 주요 관심사였다. 농촌성에 대해서 기능주의적 접근법, 정치경제학적 접근법, 후기 구조주의적 접근법,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 온 서구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농촌성 개념의 혼란성과 무용성(Urry, 1984)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최근에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사실상 도시와 농촌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Thomas, 2018) 물론, 박덕병 외(2006)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서구에서도 농촌성을 일종의 농촌에 대한 정태적인 관념이나 상징으로 나타내는 연구들은 최근에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Willits, 1993; Cloke et al. 2001; Zografos, 2007; Jacquet et al., 2017; Shen et al.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의 논의 중에 우리에게 유용한 부분은 Bradley & Lowe(1984)와 Pratt(1996)이 제시하고 있는 농촌성 파악에 있어서의 동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Pratt(1966)의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농촌의 경관,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지표로서 측정하는 연구를 비판하면서 이것들이 농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을 일종의 이상향으로 간주하면서 농촌이 아닌 ‘자연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성에 대한 정태적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Pratt(1996)는 마르크스 관점을 적용한 후기 구조주의와 후기 모더니즘 논의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그 보다 앞서 Bradley & Lowe(1984)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적 사회체계(local social system)’의 특성을 중심으로 동태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계되어 있다.

Bradley & Lowe(1984)는 자본주의 발전이 진전되면서 농촌의 변화는 도시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제조업체의 이전에 따른 고용의 창출을 통해서 도시의 농촌이영가치 수탈체계가 더욱 공고히 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소농과 단순소상품생산자의 지속적인 존재가 농촌성을 유지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변화는 정태적이고 몰역사적인 발전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낙후성, 전근대성, 자연성을 농촌성을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의 순환성을 중시하는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농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정한 사회조직이 다른 조직이나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지역적 협력관계나 공동체성 등의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Bradley & Lowe, 1984, 5)고 서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응하는 농촌 내부의 다양한 내생적 발전 시도를 고려하여 농촌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hcuksmith, 2018). 이러한 농촌성에 대한 서구의 연구가 근교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도시 팽창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과 도시로 흡수되는 지역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구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농촌성(Rurality)에 대한 연구는 주로 농촌지역의 현황을 측정하고 이를 도시와 비교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성 내지는 농촌다움을 결정짓는 요소를 모색하는 연구들(박덕병 외, 2006; 박석희 외, 2002; 김정태 외, 2009; 진양명숙 & 김주영, 2014)은 주로 농촌을 농촌으로서 특징짓도록 하는 표상과 인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사실상 도시민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농촌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결국 농촌성을 낙후성과 전통성, 전근대성, 또는 자연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를 농촌연구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태적인 관점으로 농촌성을 분석하면서 현실적으로 농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박덕병 외(2006)의 연구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외국의 농촌성에 대한 논쟁을 기능주의적 접근법, 정치경제학적 접근법, 후기 구조주의적 접근법,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법 등 네 가지로 자세히 구분하고 각각이 정의하는 농촌성 개념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대부분 농촌성을 농촌을 나타내는 표상(symbols) 내지는 인식(perception)으로 간주함으로써 일정한 정태적인 상태에서의 농촌을 표현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박덕병 외, 2006; 박석희 외, 2002; 김정태 외, 2009; 엄은희, 2012; 진양명숙 & 김주영, 진양명숙, 2015)에 그치고 있고, 실제 농촌지역의 농촌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러한 정태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서 최근 농촌개발 관련 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촌성’을 유지하는 농촌개발(유수상, 2016)을 마치 자연친화적이고 전통적인 요인들(박석희, 2002; 진양명숙 & 김주영, 2014)이 결합된 이상적인 개발 방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지 농촌이 도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보전되고, 전통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농촌의 실제적인 변화 상황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농촌다운’ 농촌이라는 것이 과연 이상적인 공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근교 농촌마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현황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농촌성의 지속방식이 마을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이 농촌과 농촌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보다 단순한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검토하였던 Bradley & Lowe(1984)이 제시하는 “지역적 사회체계(local social system)”개념을 응용하여 농촌성을 일정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의 작동 방식 또는 농업노동의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을 단위 주체들의 결합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농촌마을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농촌성에 대해 마르크스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대적 형태의 농업을 시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전근대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단순소상품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비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농촌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즉, 농촌마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구변화, 공동체 활동,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농업생산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마을에서 농촌성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사례마을의 선정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의 변화실태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박시현 외, 2017)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중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부분을 농촌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재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다대리와 삼남면 신화리를 사례로 하여 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와 이것이 마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들 두 마을은 농어촌 마을의 변화실태에 대한 제2차 년도 연구(성주인 외, 2016)에서 비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에 대해 도시적 특성과 농촌적 특성을 대표하는 ‘러반(Ruban)’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마을을 분류하는 연구를 통해서 선정되었다. 성주인 외 (2016)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러반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추출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126개 읍면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14개 농업 및 농촌특성 지표와 21개 도시 특성 지표를 순위화하여 5등급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위의 농촌지표와 도시지표를 적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4개의 군집(침상도시형, 도농혼재형, 농공혼재형, 일반농촌형)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제3단계에서는 위의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읍’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최근 도시화 현황등을 참고하여 울주군 언양읍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의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러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울주군의 두 마을을 선정하였다.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의 경우 언양읍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지만 지가가 저렴하여 외부인들이 축사를 건설하고 축산업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마을이며, 최근 마을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전원생활을 위한 귀촌인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 내 토지 이용상의 변화와 마을 구성원의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러반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되었다.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의 경우, 행정적으로는 ‘면’지역에 속하

지만 언양읍에서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마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도시화의 영향이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렁이쌀 친환경 재배로 인해 작목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체험을 위해 외부인의 왕래가 많이 나타나는 마을이어서 전형적인 러반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되었다.

두 마을 모두 모두 본 마을을 포함하여 각각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자연마을별로 예전부터 구획된 공간과 마을 명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연마을별로 조직되어 전승되었던 두레나 계 등 공동체 문화나 경제활동, 조직 등의 존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마을의 무형자산인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마다 치러지고 있다. 이들 두 마을은 2010년 11월 개통된 KTX 울산역세권에서 자동차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인접 마을로서 KTX 울산역을 기준으로 할 때 신화리가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3.2. 조사 내용 및 방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례 마을에 대한 조사는 크게 마을의 일반현황과 경제활동 현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첫째, 마을의 일반현황 분석에서는 마을의 특성과 경제인프라,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을 조사하였고 소득과 소비 구조 측면에서의 특성도 조사하였다. 둘째, 마을의 경제활동 현황과 관련해서는 마을

<표 1> 마을 조사 내용 개요

구분	조사항목	내용
일반 현황	마을의 특성	- 주민현황 - 자연마을의 변화과정
	마을 자산 및 경제인프라	- 마을의 주요 자산 현황 - 마을의 경제 인프라 현황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 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현황 -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 -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
	농업(축산업)활동의 실태	- 마을의 농업 특성 - 마을 농업의 대응실태
마을의 경제활동 현황	영농방식의 시도와 변화	- 농축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 마을농업의 최근 시도
	비농업경제활동의 특성 및 변화	- 마을의 산업현황 - 비농업 경제활동의 특성 - 마을의 다면적 경제활동 - 농촌서비스의 수요와 현황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	- 작목반 현황 - 마을 공동 6차산업 현황 - 기타 사회적 경제관련 사업 현황
	마을발전 정책 의견	- 주민 인식 및 정책개선 의견 등

의 농업적 특성과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실태, 영농방식의 변화 내용, 비농업 경제활동의 특성 및 변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실태 등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인식과 정책적 요구사항도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을 조사는 주로 사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와 현지 관찰조사, 그리고 이장 등 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마을 인구변화 현황

다개리와 신화리는 대도시 인근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반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변화와 동일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이들 두 마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마을이 울산 KTX 역세권과 언양읍과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도시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반 농촌지역 마을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방도시 인근 농촌지역은 근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의 농촌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을 이장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¹⁾에 따르면, 인구 변화 측면에서는 다개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울산 KTX 역세권과 더 가까운 신화리의 인구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개리의 경우 인구 수는 최근 10년간 약 7.4% 감소한 반면, 신화리는 같은 기간에 다개리의 약 두 배 가까운 13.6%가 감소하였다. 즉, 도시 근교 농촌마을 중에서도 도시와의 접근성이 더 유리한 신화리의 인구가 더 많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농촌마을 인구 변동이 단순히 도시와의 접근성이라는 요소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두 마을은 인구변화 측면에서 전형적인 농촌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도시에 종속되어 있는 주변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두 마을의 인구 및 가구 현황을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개리의 경우 2018년 현재 총 마을 인구는 399명이고 총 가구 수는 183호이다. 이 중에 독거노인 가구가 27호, 은퇴농가가 17호(25명)이다. 귀농·귀촌 가구 수는 15호이며, 이들 중

2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3년 농촌지역 축사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축산업 종사를 위해 유입된 가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농업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다개리의 경우 농촌성이 최근 들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화리의 경우 현재 총 인구 수는 254명이고 총 가구 수는 136호이다. 이 중에 독거노인 가구 수가 12호, 은퇴농가는 55호(73명)이다. 귀농·귀촌가구 수는 8가구로 나타났다.

사례 마을의 인구 변화 및 특성을 살펴보면 상당한 공통점과 함께 일부 차이점이 발견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보면, 두 사례마을 모두 50세 이상 장년층 및 노년층 인구가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현상이 동일하게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도시 근교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마을인구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농촌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50대 미만의 인구는 감소하는 전형적인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도시 근교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일반 농촌지역의 인구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인구유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두 사례마을 주민들의 의견에서 차이가 있었다. 인구유입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다개리의 경우 울산 KTX 역세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 집적되어있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은 향후에도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다. 즉, 주민들 스스로가 축사에 의한 환경오염이 향후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화리는 다개리에 비하여 KTX

<표 2> 사례마을 인구 및 가구 현황 (2017년)

마을명	다개리	신화리	
총인구	399명	254명	
가구수	183호	136호	
귀농·귀촌가구	15호	8호	
연령별 분포 (%)	20세 이하	9.0	9.4
	20~29세	11.1	5.0
	30~39세	6.6	7.6
	40~49세	10.9	14.0
	50~59세	21.7	16.5
60세 이상	40.7	47.5	

1) 마을단위 인구변화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마을의 가구 및 인구변화와 관련해서는 마을 이장과의 면담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음.

역세권 및 언양읍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다개리와는 달리 큰 규모의 축사들이 없어서 축사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 요인이 크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화리 주민들은 향후 도시 근교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이주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현재 역세권 개발압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화리 인근 지역에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신화리도 주택단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 간의 인구 변화추세는 다개리에 비해 신화리의 감소 폭이 크지만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신화리 주민들이 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전망이 현실적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며, 또한 이렇게 신화리의 인구 유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마을 내에서 이들 유입인구를 마을 공동체 내에 융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의 팽창에 따라 신화리의 향후 변화는 농촌성이 소멸되고 도시 주변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다개리는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적 요건을 불리한 농업활동이 증가함으로써 더욱 더 농촌성이 강화되는 경로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2. 마을 자원 및 공동자산

두 사례 마을의 자원과 공동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개리의 경우 마을 공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작은 체육시설 2곳이 있다. 또한 자연 및 마을 경관자원으로는 현재까지 개발 및 이용이 자제되어 비교적 생태환경(생태자연 2등급)이 양호한 고운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 인프라로는 정부지원으로 건립한 마을 창고가 유일하다.

신화리의 경우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마을회관과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인 우렁새약시 쌀의 저장창고가 있다. 또한 마

을회관 내에는 울주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받아 조성된 전통문화체험시설이 있다. 이밖에 마을 자산 중 역사문화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53년 역사의 천주교 부산교구 직동 공소가 마을 주택가 내에 입지해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부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연 및 마을경관 자원으로는 생태자연 2등급으로 분류되는 작은 마을 뒷산이 있다.

그러나 두 마을에서 모두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재한 것은 실제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에는 다소 불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마을이 모두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는 거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대중교통이 부실한 상황이라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전반적인 두 마을의 마을 자원과 공동자산 현황을 비교해 보면, 신화리가 상대적으로 다개리에 비해 마을의 전통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카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의 친환경 쌀 재배 작목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공동 활동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개리의 경우는 대부분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마을 단위에서의 공동 마케팅 활동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주로 울주군 축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을 주민 간 경제활동에서의 유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동자산의 대체적으로 부족한 현황은 마을의 공동체 활동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농촌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농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다개리의 경우는 농업생산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어서 농촌성이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화리의 경우는 공동 브랜드를 형성하여 농업 생산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마을 단위의 농업활동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성이 약화되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사례마을의 자산 및 경제인프라 현황

구분	다개리	신화리
커뮤니티 시설	- 마을회관 (경로당)	- 마을회관 (경로당)
교육시설/의료시설	-	-
자연 및 경관자원	고운산(생태자연2등급)	마을뒷산 (생태자연2등급)
관광·역사 자원	-	- 천주교 직동공소
기타 공동자산	- 체육시설 - 창고	- 저장창고 - 전통문화 체험시설

4.3.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두 사례 마을 모두에서 그동안 전승되어 온 두레, 품앗이 등 농업생산에 대한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현재 마을마다 일부 존재하는 수도작과 축산 관련 작목반이 유일한 공동체 기반의 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경제활동에 대한 주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목반 외에 마을 공동시설 운영이나 공동생산 활동은 과거에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또한 두 마을 모두에서 개별농가나 마을 단위에서의 가공품 생산 활동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최근 다른 농촌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농가 단위에서의 농산물 판매·유통 및 6차산업이나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이 시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농축산업 이외의 경제활동 의향이나 농업 관련 새로운 경제 활동 수행 계획을 보면 다개리의 경우 조사대상 주민 중 94.1%, 신화리의 경우는 97.3%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농업생산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의 부재는 사실상 농촌마을에서 주로 나타나는 주민들 간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동체성의 약화가 반드시 농촌성의 약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다개리의 경우 공동체 기반 활동의 약화가 개별적인 축산업의 진전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적절히 농업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신화리의 경우는 공동체 활동의 약화와 함께 농업활동의 감소도 나타나고 있어서 도시 의존성이 더욱 증가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4. 경제활동

두 사례 마을 주민들의 주요 경제활동을 보면, 현재까지는 농축산업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전형적인 농업 중심 농촌 마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시 근교 농촌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자영업과 임금노동자 등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는 보는 것처럼, 다개리의 경우 농업과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영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을 가구의 52%가 경종 농업, 29.5%가 한우 기반

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등 약 57.8% 가량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종과 축산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농가는 42가구이며, 약 1800여 두 규모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화리의 경우도 농업과 축산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영농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다개리와 동일하다. 즉, 마을 가구의 약 67% 가량이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33%는 한우를 생산하는 소규모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총 78% 정도의 농가가 농업과 축산업의 복합영농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축산농가는 26가구이며, 전체적으로 약 550두 규모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마을 모두 대부분의 가구들이 농축산업 복합영농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의 주민들이 인근 지역에서 자영업과 임금노동 등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농축산업 비율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농축산업 비율을 보면 다개리 57.8%, 신화리 78%로 신화리가 20% 정도 높다. 즉, 전체 주민 중에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 측면에서 보면, 다개리에 비해 신화리의 농촌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영업과 사무관리 등 임금노동자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자영업의 경우 다개리가 6.7%로 신화리 2.2%에 비하여 3배, 사무관리, 생산/노무, 판매/영업 등 임금노동자의 경우 다개리가 22.2%로 신화리 8.5%에 비하여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시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다개리에서의 비율이 신화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개리의 농업활동 비율이 신화리보다 낮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적 특성의 경제활동이 다개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농규모에서의 차이이다. 다개리의 경우 축산업에 특화되어있는 반면, 신화리는 수도작 중심의 농업기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가축 사육 규모만을 보면, 다개리가 신화리에 비하여 사육 규모 면에서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마을 농가들의 다수가 복합영농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표 4> 사례마을 주민들의 주요 경제활동 종사분야 (단위: %)

구분	농축산업	자영업	사무/관리	생산/노무	판매/영업	기타
다개리	57.8	6.7	13.3	2.2	6.7	13.3
신화리	77.8	2.2	2.2	2.2	4.1	15.6

적인 영농규모 면에서도 다개리가 신화리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의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특성은 영농 규모가 전반적으로 큰 다개리가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인 신화리에 비해서 더 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마을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농촌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개리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영업과 사무관리 임노동자들은 마을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직장을 갖고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마을 내부의 경제활동 변화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따라서 전체적인 농업활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개리의 농촌성이 신화리보다 더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4.1. 소득 수준 비교

사례마을 주민들의 소득 구조 및 특성과 관련해서는, 두 마을 모두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소득이 가구 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사례마을의 가구당 총 소득에 대한 분포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개리의 경우 1000만원이상 4000만원이하의 소득구간에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농가들이 점점 많아지는 반면에, 신화리의 경우는 그 반대로 소득이 높은 농가의 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00~4000만원 소득 구간과 5000만원 이상 구간에서 다개리의 경우 가구당 3000~4000만

원 소득 구간이 22.2%로, 신화리 6.7%에 비하여 3배 이상 많았고, 50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서도 신화리 2.2%보다 3배 가량 높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리의 경우 1000~2000만원 소득 구간이 20.0%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다개리의 경우 31.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신화리는 11.1%로 두 마을 간에 약 3배 가까운 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을 고려할 경우 다개리 농가들은 농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농업활동을 현재와 같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서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신화리의 경우는 낮은 농업소득으로 인해서 향후 대안적인 소득원이 제시된다면 농업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화리의 현재 가구당 소득 수준 상황은 농촌성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마을의 소득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분야별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농가당 평균 총수입액에서는 다개리가 2328만원으로, 신화리 1361만원에 비하여 71%가 높다. 이 가운데 특히, 농축산업 소득의 경우 다개리가 1309만원으로 신화리 831만원에 비하여 57%가 많고, 비농업 사업소득에서도 다개리의 경우 2500만원으로 신화리 750만원에 비해 3.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비되는 것으로 두 마을 간에는 임금소득, 연금 및 정부지원, 이전소득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개리와 신화리의 소득 수준의 차이는 다개리 농가들이 비교적 큰 규모의 축산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연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두 마을의 소득수준이 이 조사와 함께 진행된 전체 20개 농촌지역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이들 두 마을의 경제활동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통해서도 다개리의 지역적 특성이 농업과 비농업 활동의 소득이 모두 높은 전형적인 도시 근교 농업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화리는 소규모 농업활동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 배후 농촌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4.2. 소비 구조 비교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과 관련해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례 마을 80-90%의 주민들이 1000만원 이하를

<표 5> 사례마을의 소득 및 소비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다개리	신화리	전체	
가구당 소득수준	500 이하	28.9	37.8	17.5
	500-1000	8.9	17.8	19.6
	1000-2000	13.3	20.0	24.7
	2000-3000	17.8	13.3	12.7
	3000-4000	22.2	6.7	10.4
	4000-5000	2.2	2.2	5.0
	5000 이상	6.7	2.2	10.1
부문별 소득현황	평균 총수입	2,328	1,361	2,368
	농축산업 소득	1,309	831	1,657
	임금 소득	2,680	2,300	2,487
	비농업사업소득	2,500	750	2,831
	연금/정부지원	273	401	430
	이전소득 등	269	291	342
가구당 소비수준	1000 이하	82.2	93.3	53.2
	1000-2000	8.9	4.4	22.7
	2000-3000	6.7	2.3	15.1
	3000 이상	2.2	0	9

지출하고 있다. 두 마을의 소비수준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본 소득 수준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개리 주민들의 소비 수준이 신화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소비 생활 중 크게 차지하는 항목은 두 사례마을 모두 생활, 주거, 의료, 교통통신, 문화 여가 교육, 부채상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두 마을 모두 도시 근교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비생활은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서비스의 수요와 현황과 관련하여, 두 사례 마을 모두 일용품, 신선식품, 잡화 등의 구입과 생활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언양읍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여가 생활이나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주로 언양읍 내 또는 울산시 등을 이용하고 있다. 노래교실이나 건강교실 등 일부 문화 여가생활 서비스의 경우만 행정당국의 지원으로 마을회관 내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즉, 소비 생활을 위한 주요 방문지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언양읍을 지칭하고 있어서 소비생활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생활과 관련해서는 두 마을 모두 도시 의존적인 주변 지역으로서의 농촌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4.3. 농업 활동 비교

농업 특성과 관련해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례 마을 모두가 농가 비율이 50%-53%로, 언양읍 전체 농가 비율 16.9%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쌀 생산과 관련해서는 축산업이 중심인 다개리의 경우는 쌀 생산 및 판매는 모두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신화리에서는 우렁이 농법을 도입하여 카톨릭농민회와 결연을 맺은 작목반에 11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언양농협 우렁새약시 작목반에 30가구 등 모두 41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의 대농이 참여하는 농기계작목반은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일정 비용을 받고 농업 활동을 대행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표 6> 사례마을 농가 및 비농업활동 현황

	구분	다개리	신화리
농가현황	총 가구	183호	136호
	농가	97호	68호
	비농가	86호	68호
	농가비율	53.00%	50.50%
비농업활동 현황	자영업	6.7	2.2
	사무/관리	13.3	2.2
	생산/노무 등	3.12	2.2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다개리의 경우 언양축협 중심으로 조직된 작목반(34농가)을 중심으로 생산, 출하하여 지역 한우 브랜드인 ‘햇토우랑’ 브랜드로 가공,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언양농협이 조직한 1곳의 사료작물 작목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작목반에는 약 31개 농가가 참여하여 소 사료인 호맥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신화리는 축산농가 대부분은 농가 내에 외양간 수준의 소 규모 축사에서 약 10두 내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약 20여 농가가 언양축협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다.

농축산물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다개리의 경우 쌀은 개별 출하의 방식으로 농협으로 유통하고 있으며, 한우는 언양축협이 조직한 작목반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다. 신화리의 경우는 쌀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되어 거의 전량이 직거래 형태로 유통, 판매되고 있다. 카톨릭농민회와 결연을 맺은 작목반이 생산한 쌀은 거의 전량이 부산의 ‘우리 농촌 살리기운동본부’를 통하여 직거래되고 있고, 언양농협 작목반 역시 생산된 쌀을 농협과 직거래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도 언양축협 한우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 출하되고 있다. 사례 마을 모두 농축산과 관련하여, 마을 단위의 별도 유통·판매조직은 없이 농협이나 축협과의 계통출하만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두 마을의 농업활동을 살펴보면, 다개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규모에서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농업생산을 수행하고 있고, 신화리의 경우는 소규모 농가들의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축산물의 유통과 판매는 대부분 외부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다개리에서는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개별영농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신화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농업활동의 활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와 같은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농가들의 계층분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개리에서는 상층 영농으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반면에, 신화리는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탈농하는 과정인 소규모 농가로의 유지 내지는 감소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것은 다개리에서는 농촌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신화리에서는 소규모 농가들 간의 공동활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농촌성이 약화되고 도시성이 강화되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4. 비농업 경제활동 비교

비농업활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일부 주민들과 귀촌인들이 자영업과 임금노동자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다개리가 신화리에 비하여 자영업 및 임금기반의 경제활동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개리에는 자영업이 6.7%, 임금노동 형태의 사무/관리 및 생산/노무 등 직종이 각각 13.3%, 3.12%로, 이들 모두 울주군 또는 행정리 인근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화리에는 자영업 2.2%, 임금노동형태의 사무관리 및 생산노무직이 각각 2.2%로 나타났다.

다개리의 경우는 마을 자체의 산업이 전적으로 농축산업 기반이며 다른 산업 분야의 활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장조사 결과, 마을 내에 유일하게 근로자 6-7명 규모의 소규모 자동차 부품 관련 공장이 입지해 있으나 마을 주민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과의 교류는 전혀 없다. 마을에서 비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은 언양읍이나 울산시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는 농축산업 이외에 사실상 소규모 슈퍼와 같은 상업시설 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6차산업 활동이나 기타 농업 관련 연계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5.9%의 주민만이 정부에서 ‘직거래나 직판장 운영’을 지원해 준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신화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을 내에 고용 규모 4-5명 정도의 빠렛트 공장과 싱크대 제조 공장 등 소규모 사업장 3곳이 있으나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나 연계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적은 비율의 비농업활동도 마을 진입로에 소규모 소매점을 운영하는 주민 1명이 있을 뿐 모두 마을 외부의 언양읍으로 출퇴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에 비농업활동 기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에 따른 비농업활동 추진 의사에 대한 설문에서도 단지 2.7%만이 가공품 생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을의 비농업활동의 수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모두 전형적인 농촌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5. 마을 주민들의 미래전망 비교

마을의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사실상 해당 마을이 농촌적 성격의 마을로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적 성격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마을 변화에 대한 사례 마을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다개리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점차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현재의 모습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농가들이 더 많았다. 이는 다개리가 언양읍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마을이 축산단지화되면서 약취 등의 이유 때문에 향후 마을로의 인구 유입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화리 주민들의 대부분은 ‘도시로 변화하거나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역세권과 언양읍과의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 및 향후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마을이 도농복합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두 사례마을 주민들 모두 농촌에서 도시적 성격으로의 이행을 마을 발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화에 유리한 지역인 신화리 주민들이 다개리 주민들에 비해 도시적 성격으로의 변화에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들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마을 상황이나 주변 여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높은 지역은 농촌성의 유지에 긍정적이며, 반면에 농업활동의 수익보다는 도시화를 통한 기대이익이 높은 경우는 농촌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농업의 대응상태와 관련해서, 두 사례마을 주민들은 향후 농축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농가 경영 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농가 경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 상태 유지’의사를 밝힌 주민들은 다개리의 경우 73.5%인 반면, 신화리 주민들은 그 절반 수준인 35.1%에 그쳤다. 더욱 특이한 점은 ‘농업 활동을 포기하고 싶다’는 문항에서는 다개리 주민들의 5.9%만이 동의한 반면에, 신화리 주민들의 경우 무려 4배나 많은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마을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업활동의 유지 여부가 농촌성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개리의 경우 농촌성이 향후 마

<표 7> 농가경영 및 농지처분 계획 (단위: %)

구분	다개리	신화리	전체	
농가 경영 계획 전망	현재 규모 유지	73.5	35.1	71
	규모 축소	5.9	8.1	10.2
	규모 확대	5.9	5.4	4.3
	농업활동 포기	5.9	24.3	8.6
	기타	8.8	27.1	5.9
은퇴시 농지 처분 계획	자식상속	23.5	54.1	27
	계획 없음	20.6	32.4	45.4
	임대/대행	52.9	13.5	15
	기타	3	0	12.6

을 변화에서도 중요하게 유지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화리의 경우는 마을의 도시로의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농촌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마을로 판단할 수 있다.

4.5.1. 농지 처분 계획

향후 은퇴 시 농지처분 방식에 대한 문항에서도 두 사례마을 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개리 주민의 52.9%가 경우 ‘임대 또는 대행 등’, 23.5%가 ‘자식에게 상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반면, 신화리의 경우 13.5%만이 ‘임대 또는 대행 등’, 54.1%가 ‘자식에게 상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즉, 다개리의 경우 농가의 영농지속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에 비해, 신화리의 경우 영농 지속보다는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개리에서는 임대 또는 대행 비율이 전체 평균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축산업의 좋은 수익성이 영농 지속의 의도를 나타내게 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다개리의 경우 농업활동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사업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본인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임대나 대행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지속할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신화리의 경우는 농업활동의 지속여부에 큰 관심이 없으며 단지 농지를 재산가치로 활용하는 것이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개리에서 농업활동의 유지와 연관된 농촌성의 유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종합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도시 근교 농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향후 변화 전망을 조사하여 해당 마을에서 농촌성의 존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두 마을의 분야별 농촌성에 대한 특성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재 두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농촌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인구변화 측면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전형적인 농촌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활동이 여전히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이고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 등이다.

둘째는 위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마을에서의 농촌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분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현재 주민들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농업활동에서의 수익성 높은 다개리의 경우는 외부 인구유입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서 마을 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생산의 수익성이 높아서 지속적인 농촌성의 유지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신화리의 경우는 주변 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영향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활동에 대한 수익성으로 인해서 농업활동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농지를 단지 재산적 가치로만 활용하려는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성이 약화되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촌성이 유지되는 다개리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것은 개별 농장들의 경영 규모가 증가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다개리에서 축산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수익성도 증가하고, 이에

<표 8> 사례 마을의 분야별 농촌성 정리

구분	다개리	신화리
인구유입 및 변화 전망	귀농귀촌 적음 (농촌성 강화)	귀농귀촌 많음 (농촌성 약화)
마을 자원 현황	마을자원 부족 (농촌성 약화)	마을자원 유지 (농촌성 유지)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개별 경제활동 증가 (농촌성 강화)	공동활동 일부 시행 (농촌성 약화)
주민 소득 수준	소득 높음 (농촌성 강화)	소득 낮음 (농촌성 감소)
주민 소비 수준	도시 생활권 (농촌성 유지)	도시 생활권 (농촌성 유지)
농업활동 현황	상층농의 계열생산 (농촌성 강화)	소농의 미곡 계열 생산 (농촌성 약화)
비농업 활동 현황	미흡 (농촌성 유지)	미흡 (농촌성 유지)
주민들의 미래 전망	현재 모습 유지 (농촌성 유지)	도시화 진행 (농촌성 약화)
영농 규모 계획	생산규모 유지 (농촌성 유지)	농업포기 비중 높음 (농촌성 약화)
농지 처분 계획	농지 임대 (농촌성 유지)	농지 상속 (농촌성 약화)

따라 향후 해당 사업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거리에서 나타나는 영농활동의 개별화와 규모화의 모습은 신화리에서 다소 공동협력 활동의 전개 및 소규모 영농의 지속 모습과 대별되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농촌성을 분석하는 데 기존의 농촌계획적인 접근법이나 농촌과 도시의 특성을 임의적인 지표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농촌성의 존속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왕인근, 1967; 박진환, 1967; 김형국, 1974; 박석희 외, 2002; 박덕병 외, 2006; 진양명숙 & 김주영, 2014)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도시근교 농촌에 대한 현황과 향후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인근 지역의 도시적 특성과 연계된 농촌지역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위적인 계획적 방법이 더 이상 농촌지역의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더 이상 기존의 전통이나 인식에 근거한 전근대성, 낙후성, 자연성을 특징으로 하여 그 정도를 양적인 자료로 측정하는 정태적 접근법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도시 근교 농촌마을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름대로 농촌적 성격을 유지하거나 또는 도시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농촌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박석희 외, 2002; 박덕병 외, 2006; 진양명숙 & 김주영, 2014)은 농촌성을 대표하는 표상이나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성의 유지나 강화가 주민들의 농촌보전에 대한 인식을 실천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농촌지역의 농촌성은 특히, 도시 근교지역에서는 단순히 주민들의 희망과 의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보다는 농촌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 활동이 수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단순히 주민들이 전원풍경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마을 차원의 공동활동에 의해서 농촌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농촌답게 지속하는 삶의 여건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농촌성은 적

극적으로 농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 근교 농촌의 소농 또는 단순소상품생산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마을에서의 농업활동을 포기하고 도시적 생활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농가들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농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도시로 변모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마을의 변화와 농촌성의 유지에 대해서 동태적 관점을 적용한 분석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성이 유지되는 지역적 사회체계는 전통적 또는 낙후성을 근간으로 한 주민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지역보다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편입되어서 산업적 생산으로서의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간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사회체계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이나 농촌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기반으로 도시에 뒤떨어지는 특정한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자연환경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실제적 생활과 주민들 간의 관계가 농촌성을 유지하도록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있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근교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단순히 접근성보다는 해당 마을의 환경적 여건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마을로의 인구 유입 정책은 해당 마을에 대한 환경 및 경관 보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농촌개발 또는 농촌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와 관련된 측면은 농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이 농촌지역의 환경 및 경관보전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 근교 농촌마을이 농업활동을 유지하면서 농촌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며 농촌적 특성이 소멸된 채로 도시로 변모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농촌마을에서 농업 활동이 유지되는 농촌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마을에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자산의 다소 여부, 농업이나 관련 사업을 통한 소득수준이 높아서 향후에도 농업경영을 지속할 의사가 높은 경우에는 도시화로의 개발 압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을 내 공동 경제활동 자원이 부족하거나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쉽게 도시화로의 개발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쉽게 농촌지역이 도시로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농촌공간계획이나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특정 농촌지역이 도시로 변모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이미 인근 지역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농촌지역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해당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제활동의 내용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서 강조되는 부분은 소규모, 친환경적인 농가들의 공동활동이 강화되는 것을 많은 연구들에서 농촌성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도시화의 진전과 영향에 매우 취약한 체계라는 것이다. 대신, 자본주의적인 발전에 따라 농업의 산업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시의 영향에 대응하면서 도시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근교에서 농촌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교육, 의료, 복지 시설에 대한 접근성 여부는 생활여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소비생활이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대중교통 체계의 미비에 따른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서는 교육, 의료, 복지 측면에서의 농촌특성을 설정하고 이를 지표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는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 마을에서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와 같이 현재 도시 팽창 압력이 크게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욱 더 농업생산과 관련된 공동 시설의 설치, 법인의 창설, 다양한 사업 활동의 전개 등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의 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결합되면 농촌마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1. 김봉원, & 김유일. (1997). 수도권 근교농촌의 삶의 질 평가. *농촌계획*, 3(1), 77-85.
2. 김유일, & 이애란. (1997). 도시근교 농촌의 토지이용 및 경관의 변화. *농촌계획*, 3(2), 71-80.
3. 김일철. (1989).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사회조직의 변화: 21세기 농정발전방향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정태, 강동우, & 이성우. (2009). 농촌성과 도시성의 인식론적 이해. *농촌계획*, 15(3), 47-60.
5. 김형국. (1974). 도시의 근교농촌: 도시와 근교 농촌의 통합적인 지역발전. *도시문제*, 9(9), 47-54.
6. 박덕병, 이민수, & 윤유식. (2006). 농촌관광 방문객의 농촌성(Rurality) 인지 영향 요인. *호텔관광연구*, 9(3), 199-212.
7. 박석희, 이동기, & 윤상현. (2002). 농촌다움의 의미와 측정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9(1), 22-37.
8. 박시현, 정문수, & 민경찬. (2017).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3/5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박윤희, 전영미, 임상봉, 이석주, 엄대호, 장은숙, et al. (2001). *농촌마을 특성화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안산: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10. 박진환. (1967). 근교농촌의 개발: 도시성장과 근교농업의 영농합리화. *도시문제*, 2(9), 2-9.
11. 성주인, 박대식, 정은미, & 민경찬. (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성주인, 송미령, 정문수, & 민경찬. (2016).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성주인, 송미령, 정문수, 민경찬, & 이희연. (2016). *대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변화실태 조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손용훈, 이차희, & 사이토유키히코. (2014). 공장입지에 따른 대도시 근교지역 농촌마을의 경관변화 특징. *농촌계획*, 20(1), 13-26.
15. 왕인근. (1967). 근교농촌의 개발: 도시화에 따른 근교농촌의 변동과 개발. *도시문제*, 2(9), 10-19.
16. 엄은희. (2012). 변화하는 농촌성과 지역귀농운동조직의 대응: 부산귀농학교를 사례로. *농촌사회*, 22(1), 133-172.

17. 유수상. (2016).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의 ‘농촌성 (Rurality)’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In 유수상, 심재현, 김정욱, 윤원근, 이종화, 박훈, 정재희, 한경원, 송미령, 양주필, 오형은, 임상봉, 황길식, 안옥선, 김상열 (Eds.),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3-20).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윤원근. (1999). *한국농촌계획론*. 서울: 대학출판사.

19. 이상문. (2001). 한국 농촌마을의 공동정주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1), 7-23.

20. 이종성. (1989). 근교농업개발을 위한 농촌지도방향. *지방행정*, 38, 80-85.

21. 조영재, 박지혜, 윤진옥, & 장동호. (2010).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계획과제: 충남 아산시를 중심으로*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22. 주봉규. (1974). 근교농촌과 토지이용. *도시문제*, 9(9), 7.

23. 진양명숙. (2015). 귀농, 귀촌정책 담론에 나타난 농촌성 표상 과정. *농촌사회*, 25(1), 7-40.

24. 진양명숙, & 김주영. (2014). 도시민 농촌이주에 나타난 농촌성 담론 분석. *농촌사회*, 24(2), 123-160.

25. 홍성철. (1967). 근교농촌의 개발: 근교농촌 도시계획의 기본 전제. *도시문제*, 2(9), 20-27.

26. Bradley, T., & Lowe, P. (1984). Introduction: Locality, rurality and social theory. In Bradley, T., & Lowe, P. (Eds.), *Locality and rurality: Economy and society in rural regions*, (pp.1-23). Norwich, UK: Geo Books.

27. Brohman, J. (1996). *Popular development: rethink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ment*, Oxford, UK: Blackwell.

28. Cloke, P., Milbourne, P., & Widdowfield, R. (2001). Interconnecting housing, homelessness and rurality: Evidence from local authority homelessness officers in England and Wales. *Journal of Rural Studies*, 17, 99-111.

29. Jacquet, J., Guthrie, E., & Jackson, H. (2017). Swept out: Measuring rurality and migration intentions on the upper great plains. *Rural Sociology*, 82(4), 601-627.

30. Li, Y., Westlund, H., & Liu, Y. (2019). Why some rural areas decline while some others not: An overview of rural evolution in the world. *Journal of Rural Studies*, 58, 135-143.

31. Pratt, A. (1996). Discourses of rurality: Loose talk or social struggle? *Journal of Rural Studies*, 12(1), 69-78.

32. Shen, S., Wang, H., Quan, Q., & Xu, J. (2019). Rurality

and rural tourism development in China.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0, 98-106.

33. Shucksmith, M. (2018). Re-imagining the rural: From rural idyll to good countryside. *Journal of Rural Studies*, 59, 163-172.

34. Thomas, M. (2018). Making a town: Urbanity, rurality, and the politics of place in Ebersbach(Fils), 1945-1989. *Journal of Urban History*, 44(6), 1062-1080.

35. Urry, J. (1984). Capitalist restructuring, recomposition and the region. In Bradley, T., & Lowe, P. (Eds.), *Locality and rurality: Economy and society in rural regions* (pp. 45-65). Norwich, UK: Geo Books.

36. Willits, F. (1993). The rural mystique and tourism development: Data from Pennsylvania. *Community Development*, 24 (2), 159-174.

37. Woods, M. (2011). *Rural*. Oxon, UK: Routledge.

38. Zografos, C. (2007). Rurality discourses and the role of the social enterprise in regenerating rural Scot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23, 38-51.

Received August 20 2019; Revised September 05 2019; Accepted September 17 2019



Dr. Kyung-Ho Ko is a Visiting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in the Dankook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focuses on regional industry and rural economics.
Address: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si, Chungnam, Korea.
E-mail: khko0419@dankook.ac.kr
Phone: 041-550-3610



Dr. Tae-Yeon Kim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in the Dankook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are agricultural policy and rural economics.
Address: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si, Chungnam, Korea.
E-mail: tykim@dankook.ac.kr
Phone: 041-550-3614